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업무상 재해다.

Q 사업주가 제공한 음식물로 질식사한 경우

A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 외 재해로 보는 것이므로(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점심을 먹다가 음식물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경우라면 업무상 사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 한국중합노동법인합술사무소 (031-877-7582-3)

Q 회사승인 하에 회사에서 구입해 준 자재를 이용해 농구대를 제작 중 부상하였는 바 신재 인정이 가능한지요?

A 피해자는 연장근로가 끝난 후 동료근로자들과 농구를 하기에 앞서 소속 사업주가 제공한 이동식 농구대의 망이 밀려 빠져 이를 끼우던 중 농구대가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는 바, 사업주가 농구대를 제작, 사업장 내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점, 농구대의

망이 훼손되면 사업주의 비용 하에 교체되는 점, 사업주가 전동지게차를 이용해 교체하다가 근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직접 교체토록 허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구대에는 관리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이고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농구대가 그 관리 또는 사용권에 있어서 피해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의 시설관리 하자에 의한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저는 3년 전 甲으로부터 토지 1,000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甲에게 2년 동안 임대하여 사용토록 하였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토지인도를 요구하자 甲은 자신이 매도한 가격에 다시 매수하겠다고 하여 저는 이를 거절하였는데도 토지인도를 거부하여 농작물 재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법원에 甲의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토지 위에 甲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취지의 내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甲과 그의 처는 위 금지표

지를 무시하고 토지에 드나들며 경작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들을 형사처벌시킬 수 있는지요?
A 위 사안의 甲의 행위가 공무상 표시무효죄(형법 제140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甲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의 효력이 甲의 처(妻)에게도 미치는지의 문제라고 하겠습니까.
형법 제140조 제1항을 살펴보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 또는 손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본인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물질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사실상 효력을 상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며, 甲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을 무시하고 출입금지된 토지에 들어갔다면 그 가처분명령의 효력을 사실상 상실시킨 것이 되어 본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한편 甲의 처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는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의 효력은 그 처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처가 이를 무시하고 출입금지된 밭에 들어가 작업을 한 경우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79. 2. 13. 77도1455), 甲의 처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 박문우 변호사 (031-874-1652)

한·방·상·식

의정부한방병원 한방5과 병원장 김원찬



악영향을 주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며 조직과 세포의 노화현상을 일으켜 고혈압과 조기사망을 가져온다. 따라서 흡연은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현존하는 최대의 적이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도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직접 주는 행위인 것이다. 금연침은 시술방법도 간단하고 거의 통증이 없다. 한쪽 귀에 4-5개 정도의 작은 침을 꽂고 그 위에 파부색과 비슷한 반창고를 붙이고 다니다가 3일에 한번정도 내원하여 같이주기를 3-4회 정도만 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금연침에 대한 임상보고에 의하면 시술받은 1212명의 환자 중 약 82%에서 완전 금연 및 현저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좋은 기회인 것이다.
* 의정부한방병원(031-820-7200) www.jhrherb.com

담배에 대하여

煙草는 성질이 熱하고 맛은 辛하며 痰과 毒, 風濕을 몰아내고 蟲을 죽인다고 한의서에 담배에 대한 기록이 있다. 쉬게 설명하면 흡인 차고 기운이 잘 순환하지 않고 전신이 무겁고 아픈 사람들에게 써볼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효과는 크지 않으며 적은 효과에 비해 반대 급부적인 악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는 약으로 뿐만 아니라 기호품으로도 권장할 바가

못된다. 또한 한의서에 보면 마른 사람이나 열이 많은 사람 기운이 약하고 땀이 많은 사람은 특히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특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한다.
담배를 피우면 담배연기속의 타르 니코틴 등의 약 4000여종의 물리적 화학적 물질들이 호흡기에 직접 피해를 주어 폐암이나 다른 호흡기 질환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어 이것이 혈관내로 흡수되어 온몸을 돌면서 모든 장기에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안전한 섹스를 하려면

우리는 살면서 몇 명의 사람과 섹스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황당할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보면 섹스를 꼭 한 명과 하는 건 아닙니다. 피치 못할 사정, 또는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도 파트너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할 때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 욕구 불만으로는 죽는 사람 없어도 성병으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린 어떻게 안전한 섹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를 말해보자면, 먼저 파트너의 수를 줄이는 게 먼저겠

지요. 상대의 수가 많을수록 확률은 높아 집니다. 불확실한 파트너와는 하지 않는 게 최선이며, 위험할 때 또는 준비가 안됐을 때 '안돼'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집착에만 의존하고 나는 안전하다고 과신하지 마십시오. 항상 예방하고 진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와 섹스를 하게 된다면 당신의 파트너에게 성병검사에 대해 말하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연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보다 안전한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공감해야 합니다.
항상 안전한 섹스를 준비하되 불가피한 경우 콘돔을 사용하십시오. 콘돔이 성

병이나 임신을 절대적으로 보호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중 가장 간편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물론 콘돔이 촉감 저하된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안전을 위한 섹스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만일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다녀야 합니다.
섹스의 목적이 임신이 아니라면 체액을 교환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 또는 손가락 사용하는 등 다양한 대안으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성병으로 누워있어 주변 사람들의 동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병은 극소수입니다. 요즘 성병의 대표가 에이즈지만 우리가 듣지 못한
성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성병은 몸 속에 오랜 잠복기를 거친 후 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조심하여 안전한 섹스로 건강한 성생활을 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 포천의료원 치과 과장 오주은



의해야 합니다. 우유병 우식증이란 오랜 시간 특히 잠잘 때 우유, 이유식, 유산균 음료, 주스 등 당분이 함유된 우유병을 물고 있는 것이 주된 인자로 대개 젖니 중 앞니 4개에 잘 생기며 충치 진행이 아주 빠르고 심한 통증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우유병을 물고 잠들게 하면 안되며 아이를 달래기 위해 우유병을 사용해야 할 경우라면 물이나 보리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첫 돌이 되면 우유병을 사용하지 않고 컵을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위와 같이 두 돌까지의 치아관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두 돌까지의 아기들은 치과 치료 시 협조가 불가능 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치료가 필요하면 진정약물까지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엄마, 아빠의 관심도와 치아관리방법에 따라 아기 치아의 건강이 좌우되므로 충치가 발생되어 어려운 치료가 불가피하지 않도록 적절한 칫솔질관리, 적절한 음식물의 종류, 적절한 음식섭취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포천의료원 (031-639-9114)

우리아기의 치아관리

첫째, 무치열기(이가 하나도 없는 시기)입니다. 잇몸 안에서 치아를 형성하는 씨가 자라고 있는 시기로 얼마나 아빠가 젖은 거즈를 손가락에 끼고 잇몸과 입천장, 혀를 잘 닦아줍니다. 이때 깨끗한 거즈와 손을 사용해야 하겠죠?
둘째, 첫 이가 나오는 6개월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첫 이 2개가 나오는 6개월 즈음은 이유식을 시작할 시기로 당분이 많은 과즙이나 유산균 음료는 피해야 하며, 수유나 이유식 후에는 반드시 거즈수건이나 실리콘 칫솔 등을 사용하여 새로 나온 약한 젖니를 잘 닦아주어야 합니다. 셋째, 첫 돌부터 두 돌까지입니다.

16개월 전후가 되면 젖니 어금니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로 어금니가 생기면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하며, 24개월 정도가 되면 대부분 20개의 젖니가 모두 나옵니다. 이때는 충치 예방에 매우 힘써야 할 시기로 엄마, 아빠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아용 칫솔이나 유아용 치약을 사용하며 서둘러라도 칫솔질 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마무리는 엄마, 아빠가 다시 한번 더 닦아주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고 난 이후나 잠자기 전에는 더 신경 써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자주 아이의 치아를 관찰하여 색변화 즉 갈색, 흰색 반점이나 갈색, 검은 줄, 점등이 보이던 즉시 치과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로는 우유병 우식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당사는 금년도 법인 결산을 한 결과 연초 사업계획보다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 종업원이 일직 단결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초의 사업계획보다 초과 달성할 경우 주주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하듯이 직원들에게도 초과이익을 일부나마 배당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주고자 합니다. 이경우 세무상 문제점이 없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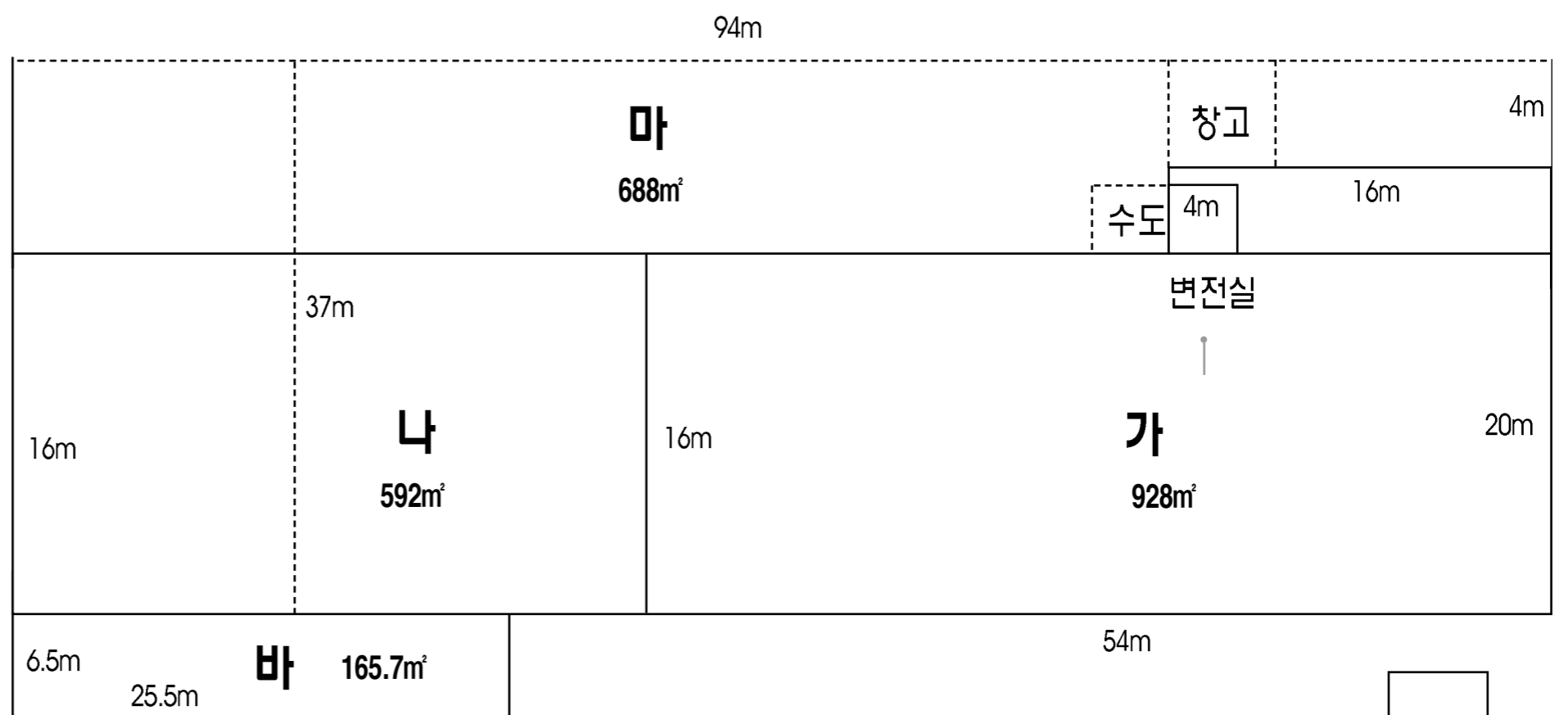
A 법인의 이익을 분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면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면 이는 자본거래로 인한 지출이므로 세법상 손금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구조상 법인의 이익은 손익거래 후(즉, 매출액에서 이에 대응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되는 것이고, 이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에 남은 금액을 재원으로 이익을 배당하게 되는 것이

므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이나 성과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이 근로자(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 감사는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비록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지급하는 것이더라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배분상여금을 이익처분방식으로 지급하면서 법인세도 절감 받으려면 미리 근로자와 성과배분 상여금을 산정하기 위한 성과산정 지표,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을 미리 정하여 서면으로 약정을 한 후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송 관 수 (02-404-9944)

공 장 임 대

- 위치 : 금현로타리(일명 고인돌 로타리)
- 대지 : 약 3000평
- 건평 : 약 750평 (별도 가건물 30평)
- 임대조건 : 입주자와 합의 전 · 월세 가능
- 전기 : 350KW
- 쾌적한 환경에 공장등록 필하고 주차 및 야적할 수 있음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22-3
- 전화 : 031)541-6961~4

H.P.010-7577-9094 Mr.Lee(01)



- 가) 16×54+16×4 ≙928㎡
- 나) 16×37 ≙592㎡
- 다) 4×2.4 ≙9.6㎡
- 라) 3×16 ≙48㎡
- 마) 94×8-16×4 ≙688㎡
- 바) 6.5×25.5 ≙165.7㎡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22-3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22-4

TOTAL (735.5평) ≙ 2431.3㎡

창문 중문 크문 (바닥부터)

